

세계체제 간극을 활용한 국제 이주를 통한 자본축적 과정: 옌벤 귀환 조선족 자영업자를 사례로

지상현* · 이승철** · 정수열***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Migration in the World-systems: A Case Study of Korean-Chinese(*Chosonjok*) Returnee Small Business Owners in Yanbian, China

Sang-Hyun Chi* · Sung-Cheol Lee** · Su-Yeul Chung***

요약 : 국제 이주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 데 반해 이주자가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귀환 이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이는 귀환 이주를 자본 축적 이후의 성공적 귀환이나 적응 실패로 인해 돌아가는 현상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족이 국내로 대거 이주해온 지 이십여 년을 넘기면서 귀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귀환하는 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옌벤으로 귀환하여 자영업에 진출한 조선족을 대상으로 귀환 이주가 어떠한 전략적 선택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최근의 옌벤 상업 경관은 귀환 조선족의 자영업 진출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귀환 조선족에게 있어 한국 체류는 단순히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국 경험과 네트워크는 옌벤에서 자본 축적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세계체제론 관점에서 옌벤 조선족 자영업자의 귀환이 주는 세계체제 간극을 활용한 자본축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어 : 조선족, 귀환 이주, 옌벤, 세계체제

Abstract : Compared to the significant number of researches on international immigration, there has been less attention to return migration. This is partly because return migration has been understood as a simple phenomenon resulted from a successful return with accumulated capital or adaptation failure. Since the mid-1990s, a large number of Korean-Chinese have migrated to Korea, and recently it became more common to witness the return of them. This study examines the strategic choice of self-employed Korean-Chinese returning to *Yanbian*. Recently,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Chinese starts a small business, such as restaurants in *Yanbian* after accumulating capital in Korea. The relatively short stay in Korea is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6463).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hyungeo@khu.ac.kr)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leesc@dongguk.edu)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Space and Environment Studies,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sychung@smu.ac.kr)

not only for saving money to initiate their own business. Rather, they could obtain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Yanbian* by using the experiences and networks built in Korea. In short, the return migration of the Korean-Chinese to *Yanbian* can be understood as a strategy of capital accumulation utilizing the gap in the World-systems.

Key Words : Korean-Chinese, Return migration, *Yanbian*, World-systems

1. 들어가며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¹⁾의 숫자는 2018년 말 기준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환을 이야기할 때 조선족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선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연구 주제는 역사, 정체성,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최우길, 2019). 그러나 조선족의 국내 이주 역사가 30년 가까이 되면서 중국으로 귀환²⁾하는 조선족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귀환의 목적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이주자의 귀환을 이주 목적 달성에 있어 '실패' 혹은 '성공'이라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이민으로 연결된 두 장소의 변화,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이민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assey (2013)의 주장대로 이주 송출지는 고립된 장소가 아니며, 내외부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곳이다. 조선족의 주요 송출지로서 연변(연변)³⁾ 또한 그러하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지상현 외, 2017). 내부적으로는 조선족 사이의 네트워크와 한족 등 타 집단과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이주 경험을 통한 한국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변은 중국내 다른 장소 및, 북한,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장소가 된다.

전술한 내용을 감안하면, 조선족의 이주는 단순

한 연변과 한국의 임금 차이를 넘어 장소 사이의 관계와 변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연변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 지역 간 불균형 발전, 한자녀 정책의 유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북한의 국제정치적 고립과 경제개혁의 실패, 남한의 대북정책의 변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경제제재 등이 모두 북한-중국 접경지역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즉 글로벌-내셔널-로컬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연쇄적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상황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나 변화 이후 상황을 사후적으로 서술하는 지역지적 기술은 적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지역 변화와 이주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적용한다. 이는 해외지역연구가 범하기 쉬운 오류, 즉 지역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론적 함의 도출에 실패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복잡한 지역의 동학을 접경지역 연구 이외의 지리학 및 사회과학 일반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선족의 귀환이주를 세계체제의 간극을 이용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바라본다. 국제이주의 원인은 신고전경제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국제이주 이면의 다양한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특히 국제이주의 시작점인 연변과 같은 반주변부의 주변지방이면서 동시에 접경지역의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주는 국제정치, 국내제

표 1. 설문 응답자의 일반 사항

성별	빈도수(명)	비중(%)
남성	24	53.3
여성	21	46.7
합계	45	100.0
연령대	빈도수(명)	비중(%)
20대	2	4.4
30대	15	33.3
40대	24	53.3
50대	3	6.7
60대	1	2.3
합계	45	100.0
출생지	빈도수(명)	비중(%)
지린성(吉林省) 옌벤(延邊) 룡징시(龍井市)	14	31.1
지린성(吉林省) 옌벤(延邊) 안투현(安圖縣)	1	2.2
지린성(吉林省) 옌벤(延邊) 왕청현(汪淸縣)	3	6.7
지린성(吉林省) 옌벤(延邊) 옌지시(延吉市)	19	42.2
지린성(吉林省) 옌벤(延邊) 허룽시(和龍市)	3	6.7
지린성(吉林省) 옌벤(延邊) 훈춘시(琿春市)	3	6.7
지린성(吉林省) 창춘시(長春市)	2	4.4
합계	45	100.0
학력	빈도수(명)	비중(%)
중학교 졸업	2	4.5
고등학교 졸업	22	48.8
대학교 졸업	19	42.2
대학원 졸업	2	4.5
합계	45	100

도, 정체성과 같은 복잡한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선족의 자본형성과정을 세계체제의 간극을 이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Massey *et al.*, 1993). 이를 위해 한국에서 자본을 축적하고 돌아와 옌벤에서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조선족을 상

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주의 경로 및 동기 그리고 귀환하게 된 이유 및 한국과의 네트워크 유지에 관한 사항등을 재확인하였다. 옌벤의 조선족 귀환은 세계체제 간극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국제정치적 요인, 문화적 요인 역시 세부적인 이주 경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선족의 귀환창업의 동기 및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소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설문지는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한국 경험 및 옌벤 귀환, 중국에서 옌벤 이외 지역 경험 및 옌벤 귀환, 자영업 관련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주로 이주의 동기와 한국 및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경험, 이주를 통한 자본축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옌지시에서 귀환창업을 한 조선족 45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비슷하며, 주로 30대와 40대가 많았다. 대부분은 옌지시를 포함한 조선족 자치주 출신으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최초 설문지 회수 이후 응답문항이 적은 설문지의 보완을 거쳤으나 미응답 문항이 존재하였고, 응답부수의 한계로 통계적 분석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답사를 통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8년 2월 27일에서 3월 3일까지 1차 답사를 하고 같은 해 7월 13일에서 20일까지 2차 답사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귀환 이주와 조선족 이주

1) 귀환이주

귀환이주(return migration)란 이민자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로, 귀환의 목적이나 동기는 다양하다. 국제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귀환이주도 오래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귀환이주에 대한 연구는 이민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귀환이주를 ‘목적의 달성’ 혹은 ‘적응의 실패’로 바라보는 신고전주의 노동이론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Cassarino, 2004). 이러한 귀환이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신고전주의와 구조주의로 나뉜다.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은 국가 간 임금격차에 주목하며, 노동의 국제이주는 임금격차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귀환이주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주자가 이주의 편익과 비용을 잘못 계산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패 때문이거나 애초 계획했던 목적을 이룬 성공 때문이다. 노동이민의 경우 송출지와 유입지 간 임금격차가 핵심 요인인 만큼 귀환이주를 이주의 편익과 비용으로 바라보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국제이주의 동기가 정치적 박해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이 드러날수록 신고전주의적 시각은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석현호, 2000). 특히 가족의 동행여부, 문화적 차이, 영주권 등 이민 제도, 이민 송출국의 변화, 습득한 기술 및 지식이 초래하는 결과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구조주의적 시각이 귀환이주를 설명하는 틀로 등장하였다.

귀환이주를 설명하는 구조주의적 시각을 하나의 단일한 흐름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구조주의는 대체적으로 귀환이주가 개인의 비용과 편익의 계산 결과라기보다는 주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선택이며, 비용과 편익의 계산 방식은 하나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맥락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귀환이주의 초기 연구인 Cerase(1974)의 미국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의 귀환이주 분석은 다양한 귀환의 동

기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국제이주의 성공과 실패로 인해 귀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은퇴 이후의 귀향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와 아이디어의 실현 등을 이유로 이주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귀환이주를 바라볼 때, 경제적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송출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집단 내·집단 간 네트워크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환이민을 바라보는 구조주의적 시각은 세계체제론, 네트워크 이론 등 다양하지만, 장소별 임금격차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세계체제론은 가장 중요한 이론적 틀이 된다. Wallerstein이 제시한 세계체제론은 세계경제 발전과 지역 분화를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중심부에서는 고부가가치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주변부는 생산원료 등 저부가가치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러한 중심부와 주변부의 거래관계는 이러한 세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자본의 반주변부와 주변부로 침투는 토지와 자원에서 일부 주민을 이탈시키고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의 이동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세계체제론은 노동시장이 한 국가 내에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국제이주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Massey *et al.*, 1993). 그러나 세계체제론이 도식적이고 지나친 단순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로 규정되는 지역 구분이 국가 내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중심부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반주변부와 주변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세계체제론자들의 대응은 수세적이거나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세계체제론의 시각에서 보면 귀환이민은 대체적으로 주변부의 주민이 중심부로 이주했다가 다시 주변부로 귀환하는 과정을 뜻한다. 북한-중국 접경 지역인 연변조선족 자치주 역시 이러한 세계체제론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세계체제의 반주변부인 중

국의 주변지방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국경 넘어 북한 지역은 세계체계의 주변부가 된다. 또한 연변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된 남한은 세계체제에서 중심부로 규정될 수 있다(Babones, 2005). 이러한 상황에서 연변 조선족의 국제이주취업과 이를 통한 자본의 형성은 이러한 세계체제의 간극을 여러 차례 전략적으로 넘어서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조선족 이주: 영역화와 탈영역화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으로 조선인의 본격적인 이주와 정착은 1880년대 후반 봉금령이 해제되면서 시작되었다.⁴⁾ 물론 그 이전 시기에 이주했던 조선인도 있었으나 이들은 중국에 동화되어 역사적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⁵⁾ 봉금령 해제 직후 이주 흐름은 흥년과 전염병 창궐에 따른 삶의 기반을 잃은 평안북도부와 함경북도부 출신 농민들이 압록강 중상류와 두만강 중하류 지역으로 월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직후에는 토지를 수탈당한 농민 그리고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한 의병과 독립운동가가 대거 이주하였다. 이 시기 이주 한인의 절반은 함경도 출신으로 두만강 유역에 정착했으며 또 다른 4분의 1가량은 평안도 출신으로 압록강 유역으로 이주했다. 1930년대 들어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고 철도 부설, 토지 개간 및 식량 증산을 추진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이주 양상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논농사에 익숙한 남부지방 한인들을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미리 선정된 특정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 결과 경상도 마을, 전라도 마을, 충청도 마을, 강원도 마을, 경기도 마을 등 출신지역별 집단마을이 형성되었다(임채완 외, 2013; 정수열, 2018).

해방 직전 216만 명에 달하던 조선인은 해방 이후 그 중 절반가량이 귀국하여 112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조선족은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다. 소수민족 중 하나로 공식 인정받은 조선족은 집거구를 형성하고 민족구역자치와 촌민자치 등 정치적 권한을 행사한다. 집거구는 1950년대 전반을 거쳐 자치주, 자치현, 자치향으로 체계화한다.⁶⁾ 문화혁명기에 문화적 수난과 경제 침체를 겪기도 했으나 조선족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19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급격한 출산을 감소의 여파로 인구수가 1990년대를 걸쳐 정체되더니 급기야 2010년에는 183만 명으로 감소했다.

1990년대 이후 조선족의 눈에 띄는 인구학적 변화는 인구뿐만 아니라 지리적 분포에서도 일어났다. 선부론(先富論)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농촌보다는 도시, 내륙지역보다는 연안지역을 우선 개발하게 되어 지역 불균등 발전이 심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민공사가 해제되고 농가생산책임제가 실시됨에 따라 막대한 농촌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호적제도가 약화되어 이주의 장벽이 낮아졌다(김재기, 2005). 이러한 사회 변화에 편승해 조선족은 농촌에서 도시로 나아가 동북3성을 떠나 대도시, 특히 연안 지역에 위치한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공식 통계 상으로 2010년 산둥, 북경, 상해, 천진, 광둥 등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수는 약 16만 명에 달한다(최재현·김숙진, 2016: 175).⁷⁾ 또한 중국 내 역내 그리고 역외 이주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국제 이주도 이루어졌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한국에 친척이 있는 소위 연고동포 조선족의 직접 방문이 가능해졌다. 당시 내국인 기피로 소규모 제조업체와 서울 주변 신도시 개발 건설업체는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친지방문자를 통해 조선족 사회에 알려졌고 중국에 비해 높은 임금 수준과 송금 시 환율차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주가 급증하게 되었다(이현욱 외, 2014). 2004년 들어 조선족은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동포 지위를 얻는다. 같은 해 동포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방문취업제가 실시되어 안

정적인 장기 체류가 보장되었다(박우, 2017). 2018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의 수는 70만명이 넘으며, 이는 대략 전체 조선족의 3분의 1에 해당한다.⁸⁾

요약하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과 독립운동 그리고 만주국 건설에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한반도에서 탈영역화 되었던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소수민족의 지위를 얻어 동북3성 민족자치구에 재영역화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 이후 역내, 역외, 국제 이주 등을 통해 다시금 탈영역화되었다. 그 과정은 동북3성 내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역내 이촌향도, 동북3성 밖(연안지역) 대도시로 역외 이촌향도, 그리고 한국 도시로의 '초국적 상경(박우, 2017)' 등 세 갈래로 이루어졌다.

3. 조선족의 자본축적 과정

1) 이주를 통한 사회네트워크 확장과 자본 축적

조선족의 이주 패턴은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으로의 이주 노동이 있다. 한국에 세 번을 다녀와야 노후보장이 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조선족의 남한 이주 노동의 규모는 크고 빈도가 잦다. 통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약 70만 명 이상의 조선족이 요식업, 건설업 등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이주 패턴은 조선족의 주요 무대였던 동북3성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인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와, 제조업이 발달한 산동지역 등으로 취업의 기회를 찾아 나섰다. 마지막 부류는 민족자치주 내에서 이주하지 않거나 인근 도시로 이주하거나 자치주의 변경적 특성을 활용하여 대북무역 등

을 통해 경제적 삶을 일구는 부류이다.

조선족은 이러한 이주를 통해 사회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를 넓혀 왔다. 이영민·이은하·이화용(2013)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변 조선족이 경험한 다른 가족 구성원의 국내외 이주를 통해서 확장되는 사회네트워크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는 네트워크가 연변 지역 내 도시들과 인접한 동북3성의 도시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특구로 지정된 상해와 대련 등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으로의 이주 열풍이 일어나면서 국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나아가 이주는 일본, 미국, 러시아까지도 확장되며 국내 네트워크도 베이징, 톈진, 칭다오 등으로 확장된다. 중국이 세계화 흐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2000년 이후 국내 네트워크는 광저우, 선전, 쿤밍, 쓰촨까지 확장되며 국외는 유럽, 오세아니아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주 조선족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규모의 자본을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중심부(남한의 서울 등) 혹은 반주변부에 위치한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자본을 축적하거나, 대북무역(반주변부와 주변부의 부등가교환)을 통해 초기 자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주변부의 변경지역인 연변에서 사업체를 영위하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은 크게 3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향후의 개인적 삶의 경로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개인적 생애주기, 가족 특히 자녀의 교육, 외부와의 네트워크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요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어떠한 요인이 서로 다른 선택지를 고르게 만드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2) 옌벤에서의 해외노무, 송금경제, 그리고 귀환창업

1982년만 하더라도 조선족이 동북3성에 거주하는 비중이 97.9%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92.2%, 2010년에는 87.8%로 하락하였다(최재현·김숙진, 2016: 174). 사실 이 통계는 호적제에 따른 원적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앞서 기술되었듯이 2016년 한국 체류 조선족은 7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일본에도 수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웨이하이 등 중국 연해지역에 진출한 조선족도 적어도 20~3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최학송, 2017). 결국 조선족의 약 절반이 동북3성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조선족의 집거지역인 동북3성에서 조선족이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왔다. 구체적으로 그 비중은 지린성의 경우 1953년 6.69%에서 2010년 3.79%로, 같은 기간 랴오닝성은 1.95%에서 0.86%로, 헤이룽장성은 0.65%에서 0.55%로 감소했다. 옌벤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1995년 86만 여명을 정점으로 2010년에는 74만 여명으로 감소하였다. 자치주 전체 인구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였기에 조선족의 비중은 1978년 40.6%에서 2010년 36.5%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자치주의 지정 요건이 소수민족 비율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해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재현·김숙진, 2016: 174). 조선족의 비중 감소는 조선족 자체의 저출산과 역외 및 국제 이주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걸친 한족의 확산에도 기인한다.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인 옌지시는 옌벤조선족자치주의 중심도시이자 중국에서도 제일 큰 조선족 집단거주지이다. 서쪽으로 트인 말밭급 모양의 분지인 옌지시는 지린성 동부에 위치하여 북한, 러시아, 동해와 가깝다. 옌지시 인구는 1975년 10만 명에 미치지 못했으나 1996년에는 31만 명으로 크게 증

가했다. 특히 1990년대 전반에 인구가 급증했는데 이는 한중수교 이후 백두산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관광산업이 발전한 덕이다. 인구 증가와 함께 시가화 면적 또한 1975년 15.0km²에서 2003년에서 31.7km²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도심 주변부가 동쪽으로 확장하는 반면 신시가지는 개활지인 서쪽으로 확장하며 주거, 공업, 상업 지구로 기능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명옥, 2006).

중국의 인력송출은 개혁개방 이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으나 2002년에는 정부가 ‘경회취업중개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장려되었다. 옌벤지역에서 해외로 나간 인력은 1989년과 1990년 사이 미국, 소련, 스페인, 싱가포르, 리비아 등지로 연인원 2천 명이 나간 것을 시작으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매년 3~4천 명 해외노동자 신규 출국이 이루어졌다. 2006년 옌벤이 송출한 인력은 연인원 18만 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 향했다.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실태 조사(2013)에 따르면 조선족은 평균적으로 한국에서 얻은 소득의 50~60%를 중국내 체류 가족에게 송금한다. 같은 해 해외송출인력이 은행을 통해 옌벤으로 송금한 금액만도 10억 달러가 넘는데 이는 농촌경제 총수입보다 많으며 옌벤 지역총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연변조선족사집필소조 편, 2014).

해외송출인력의 송금이 송출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시장에도 나타난다. 백일순(2018)은 조선족의 순환 이주 노동이 송출국과 이주국 주택시장 양자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영등포구와 옌지시를 사례로 분석했다. 영등포구의 경우 조선족의 밀집지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사회적 연결망과 연쇄이주도 있지만 역내 저렴한 주택이 내국인의 기피로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렴한 주택은 송금 및 저축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주거비로 월세 기준 20~40만 원 이상을 지출하려 하지 않는 조선족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⁹⁾ 또한 한국 노무로 축적된 자본으

로 조선족이 엔지시 주택시장의 주요 소비자로 부상했다. 2004년 엔지시에서 1,120만 평방 미터의 부동산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 비용의 60% 이상이 해외노무수입에서 얻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연변조선족사집필소조 편, 2014). 또한 해외노무 조선족의 남겨진 가족, 주로 자녀세대와 조부모세대 가족이 송금을 기반으로 교육을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기도 한다(이영민·이은하·이화용, 2013). 조선족의 주택 구매는 신시가지가 들어서는 엔지시 서부에 집중되어 있어 한족 출신 저소득 신규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동부와 대비되고 있다.

해외인력송출에 따른 엔지시의 변화는 주택 부문 뿐만 아니라 서비스경제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해외송출인력의 본국으로 송금은 잔류 가족·친지의 소비를 통해 송출지의 내수를 진작하고 서비스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뿐 아니라 해외노무인력은 귀환한 후 노동시장에서 피고용되기 보다 자영업에 진출함으로써 서비스경제를 발달시킨다. 2015년 10월 13일까지 해외 혹은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귀환한 조선족의 수는 10,082명에 달하며, 그중 이미 창업한 사람이 4,046명에 달한다(방미화, 2016 재인용). 한국으로 진출했던 조선족은 60~70%에 달하는 다수가 음식업과 각종 서비스업에 근무하였는데 이때 얻은 자본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변으로 돌아와서 서양식 술집, 음식점, 노래방, 안마원, 사우나, 다방을 창업·운영한다(연변조선족사집필소조 편, 2014). 즉 해외노무는 단순히 화폐로 환산되는 자본의 이전뿐만 아니라 이주국에서 습득한 아이디어와 기술 등 무형적 자본의 이전을 낳는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상업 부동산 수요 진작 등 송출지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4. 세계체제 간극을 활용한 자본축적

1) 자본축적 수단으로서의 모빌리티

응답자의 대부분은 생애기간 동안 이주를 경험하였다. 거주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지린성 외 지역으로 이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9명, 한국으로의 이주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8명이었다.¹⁰⁾ 조사 대상이 된 귀환 창업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와 함께 한국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이러한 이주는 자본축적을 위한 기회이며, 이는 일종의 모빌리티 자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윤신희·노시학(2015)은 모빌리티는 이동성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모빌리티 자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모빌리티가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민, 시민권 등의 영역에도 모빌리티 개념이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Sheller & Urry, 2006). 조선족의 경우 중국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이외에도 한국으로의 이주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며, 방문취업비자와 재외동포비자 등 이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자본과 언어 구사능력 등 문화 자본 등이 모빌리티 자본이 된다. 귀환 조선족의 경우 이러한 모빌리티 자본을 더욱 전략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속한다. 설문에 응답한 귀환 창업자의 한국 체류 기간을 살펴보면 6년 이하의 비중이 6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연변과 한국의 임금 격차가 일정 기간 동안만 활용되었고, 해당 기간은 자본축적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변 조선족의 이주에서 한국행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응답자의 14.7%는 지린성 이외의 지역들, 특히 베이징과 산둥, 중국 남부지방으로의 이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보다 한국이 선호되는 이유는 임

표 2. 설문 응답자의 거주 이력

과거 거주 지역	빈도수(명)	비중(%)
중국		
지린성 내 지역들	70	54.2
지린성 외 지역들	19	14.7
한국	38	29.5
일본	2	1.6
합계	129	100.0

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중국 특유의 판시도 작용했다는 점이 인터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청취되었다. 즉, 베이징과 중국 남부의 경우 고학력 전문직의 이주는 가능하지만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을 하기에는 판시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베이징과 상하이, 산둥 지방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조선족 채용 역시 최근에는 매우 제한적임을 감안하면 옌벤 조선족에게 이주 목적지에서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 세계체제론적 접근에서 반주변부의 대도시(베이징, 상하이)는 고학력 전문직, 기술직 등이 이주하는 목적지가 되고, 핵심부(한국)의 건설업, 요식업, 중화학공업 부분 계약직이나 하청노동¹¹⁾ 등 2차 노동시장의 존재는 조선족의 모빌리티 자본으로 활용된다(표 3).

2) 성공과 실패를 넘어: 귀환창업의 맥락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 이주의 경제적 설명은 세계체제 내 핵심부와 (반)주변부 간 임금격차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귀환창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적 경험과 한국에서 맺은 네트워크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야만 한다. 조선족 귀환 창업자들은 대체로 요식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창업이 이루어진 업종은 음식점으로 메뉴 구성을 살펴보면 감자탕, 추어탕 등 탕류가 9곳에서 제공되고, 삼겹살, 갈비

표 3. 설문 응답자의 한국에서의 직업

근무 직종	빈도수(명)	비중(%)
단순노무직	5	12.2
무역, 물류업	6	14.6
일반기업(생산직)	14	34.1
일반기업(사무직)	1	2.5
서비스업(식당 등)	15	36.6
합계	41	100

등 한국식 불고기(5), 해장국(2), 라면, 냉면 등 면류(5), 양꼬치 등 독특한 민족음식(6) 등이 인기있는 음식이었다. 해당 음식들은 주로 한국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귀환 조선족이 옌벤 사회에 전파한 것이다. 일례로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는 설문 응답자의 경우 남편은 울산의 조선소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였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감자탕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였다. 울산의 제조업 임금이 높아 돈을 모으기 용이했으나, 아이들을 중국에 두고 와 할머니가 보살펴 주어야만 했다. 2017년 중국으로 돌아와 옌벤에 가게를 냈고, 아내가 한국에서 배운 감자탕으로 업종을 결정했다. 옌벤에서는 감자탕이라는 음식이 생소한 것이었으나,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는 한국음식임을 강조하기 위해 비용을 더 들여 한국식으로 내부장식을 하였다. 재료도 옌지 시내의 한국식품점에서 구매하고 있었으며 고향인 룡징에서 김장을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었다. 주요 고객은 조선족이 70% 이상으로 홀 서빙 역시 조선족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비교적 고가인 한국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선족을 고용할 수 있었다.

조선족 귀환 창업 업종을 살펴보면, 창업으로 인한 귀환은 Cerase(1974)가 언급한 ‘혁신 귀환(Return of innovation)’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귀환 창업자들은 한국 체류하는 동안 익힌 기술을 이용하거나, 송출지에서 흔하지 않은 업종을 선택하여

표 4. 설문 응답자의 업종 및 업체수

업종	업체수(복수응답)	주요 판매 상품 및 서비스
음식점	32	불고기, 감자탕, 추어탕, 해장국, 라면, 냉면, 비빔밥, 양꼬치 등
다과 음료 주류	12	빵, 간식, 커피, 맥주 등
설비 및 수리	5	전기, 난방, 자동차 등
생활용품	6	유아용품, 의류, 한국식품 등
기타	6	홍보, 어학연수, 무역 등
합계	61	

표 5. 현재 사업 종목의 선택 경위(복수응답)

사업 종목 선택 이유	빈도수(명)	비중(%)
개업 당시 연변에서 유행하고 있어서	15	25.0
주변에 동일한 업종의 가게가 없어서	9	15.0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어 연변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3	21.7
한국에서 관련 기술을 익혀서 잘 알고 있기에	14	23.3
연변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다가 독립하여 창업함	5	8.3
기타	3	5.0
무응답	1	1.7
합계	60	100.0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다.¹²⁾ 인터뷰에 응한 연변 한인회 인사는 조선족은 한국의 외식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며, 특히 한국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을 모방한 형태의 가게로 시작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검증된 프랜차이즈의 음식 구성을 따르되,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 음식점을 모방하는 형태가 많다. 이는 설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사업 종목의 선택 이유에 대해 한국에서의 기술과 지식 습득과 함께, 한국에서 유행하고, 이로 인해 연변에서 유행하는 종목을 선택하고 있었다.

설문에 따르면 이들의 사업 자금은 한국에서의 저축, 가족 및 친지의 도움, 중국에서의 저축, 동업자의 투자, 은행대출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에서 축적한 자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영

역의 자금 조달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귀환 창업자들의 비교적 짧은 한국 체류기간과 연결되며, 이들은 충분한 자본이 모이기 이전에 연변으로 귀환하여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귀환 조선족들은 한국으로의 이주가 초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좋은 선택은 아니며, 중국에서 경제적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지린성 및 옌지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환 창업 제도도 이러한 이주 패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방미화, 2018). 지역 인구의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급 지방정부는 지원금, 창업자금 대출 등의 유인책을 펴고 있으며, 정책이 지속되면서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정부 지원금의 존재가 알

표 6. 자본 축적 기회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

자본 축적 기회로서의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인식	빈도수(명)	비중(%)
목돈을 만들 기회로 가능하다면 꼭 가는 것이 좋다	10	22.2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예전만큼의 좋은 선택은 아니다	19	42.2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굳이 한국에 갈 필요가 없다	11	24.4
기타 의견	4	8.9
무응답	1	2.3
합계	45	100

려져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성장과 엔베의 변화, 한국문화의 지속적 유입, 중국정부의 지원책으로 인해 조선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으며, 일부 귀환창업자들이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3) 초국가공간의 탄생과 사회연결망

노동의 이동성이 높아진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조선족의 이동성은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영민·이은하·이화용, 2013). 이는 언어·문화·역사 등 조선족이 지닌 특별한 정체성 때문이며, 한국의 해외 동포 정책의 영향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당수의 국내 체류 조선족이 귀화를 선택하고 있고, 영주권 취득 등으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귀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충분한 자본축적, 혹은 한국사회에 적응실패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복수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맺는 네트워크로 인해 엔베와 한국에 새로운 장소들이 나타나고 있다(정수열·이정현, 2014). 구조주의적 국제이주 논의 역시 이민자 사회에서의 사회연결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성훈·구양미, 2018; 이창호, 2012; 정수열·임석희, 2012). 이민자들 사이의 상호부조와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사회연결망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동성이 높아지고, 장소간의 연결이

심화되면서, 이주 이후 형성되는 네트워크 이외에도 기존에 형성되었던 네트워크,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이민자를 통해 형성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구성하는 행위자와 그들이 뿌리 내리는 공간 속에서 발전하며,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초국가주의적 정체성, 초국가주의적 장소 및 공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이용균, 2013; 박광성, 2010; 이정현·정수열, 2015; King & Christou, 2010). 그러나 박경환(2007)은 이러한 초국가주의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장소와 장소가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정의로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고, 다양한 초국가주의와 이민자 집단, 초국가주의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민족주의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조선족 이주자 집단 역시 내부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귀환 창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귀환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귀환을 선택하지 않고 귀환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라고 답한 빈도가 가장 많았다. 여기서 가족은 엔베에 두고 온 자녀와 부모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형제 및 친척 등도 포함된다. 자영업자들의 동업이나 공동투자의 대상이 친척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에 영향을 미쳤다. 귀환 조선족의 경우 초국가적 정체성이라는 특징을 보이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송출지의 사회관계망을 중시하고 있었다. 또한 경쟁적인 한국사회 분위기나 조선족에 대한 가시적 혹은 묵시적 차별 등도 귀

환을 결정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귀환 이후의 사업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귀환 조선족이 운영하는 점포들은 주로 한국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관측을 위해 내세운다(표 8. 참조). 사업 아이템 선정시 한국 관련 경험과 기술을 고려하며, 실내 인테리어 및 매

장 배치와 구성을 한국과 유사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재료나 설비 등을 한국에서 들여오기도 한다. 한국 혹은 한국내 조선족 양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한국과의 네트워크 유지가 필요하다. 이들은 한국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방송을 청취하고, 인터넷, SNS, 전화를 통

표 7. 귀화를 선택하지 않고 귀환한 이유(복수응답)

귀화하지 않고 귀환한 이유	빈도수(명)	비중(%)
가족이 있는 중국(엔벤)에서 살기 원함	15	26.8
집값, 경쟁 등 한국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음	6	10.7
조선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싫음	9	16.1
중국(엔벤)이 경제적 기회가 더 많음	4	7.1
국적 회복 절차가 까다로움	3	5.4
기타 의견	3	5.4
무응답	16	28.6
합계	56	100.0

표 8. 사업체의 한국 관련성과 최신 경향 파악 방법

한국 관련 관측 전략(복수응답)	빈도수(명)	비율(%)
한국에서 일해 번 돈이 초기사업비용이 됨	18	25.4
사업 아이템 선정시 한국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기초가 됨	14	19.7
주재료를 한국에서 공급 받음	2	2.8
소스와 양념과 같은 부재료를 한국에서 공급받음	7	9.9
기계 및 설비(예, 팔빙수 기계 등)를 한국에서 들여옴	4	5.6
실내 인테리어, 매장 장식을 한국의 예를 따라서 함	10	14.1
종업원 교육이나 조직, 유니폼 등을 한국의 예를 따라서 함	5	7.0
한국에서 개발한 상표(프랜차이즈)를 사용	0	0.0
기타사항	10	14.1
무응답	1	1.4
합계	71	100.0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복수응답)	빈도수(명)	비율(%)
한국 지인과 연락	12	19.7
한국 방송	23	37.6
인터넷, SNS	19	31.2
주변 사람들의 조언	5	8.2
무응답	2	3.3
합계	61	100.0

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32% 정도가 경쟁업체가 너무 많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매장 관리와 새로운 아이템 개발, 인테리어 변경 등의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한국의 최신 경향을 파악해야 한다. 즉 조선족 귀환 창업자들은 귀환 이후에도 한국과의 네트워크 유지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있다.

5. 결론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급증하였다. 이들 대부분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선진국으로 이동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가 송출국과 유입국 간 임금 격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임금 격차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으로만 국제이주를 바라보면 다양한 이주의 요인과 동학을 간과하기 쉽다. 조선족의 국내 유입에 대한 연구 역시 이주 동기에 대한 질문과 논의는 소모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한국 사회로의 동화와 정착 그리고 잠재적 갈등과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 조선족의 귀환 혹은 귀환과 재이주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선족의 국제이주의 원인과 동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귀환이주를 이주 목적을 달성한 후 돌아오는 성공, 혹은 이주 이후 적응 실패로만 바라보면 국제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을 간과하기 쉽다.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 층위의 구조와 제도, 기구, 사회적 네트워크 등은 국제 이주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된다.

조선족은 중국의 체제 전환과 한-중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또한 여전히 소수이지만 일부는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연변 귀환 조선족 자영업자의 경우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취를 이룬 후에는 한국으로의 귀화 대신 연변에서 창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대와 40대 위주의 젊은 이주민들은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최소화 하고, 사업을 시작할 만한 최소한의 자본을 축적한 후 다시 연변으로 귀환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교적 짧은 한국 체류를 선택하고 부족한 자본은 동업이나 투자 유치, 은행 대출을 통해 해결한다. 창업자들은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은 주로 한국식 음식 등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지속되면서 한국 관련 문화와 생활양식이 연변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영향이 크다. 이러한 송출지의 변화를 일부 조선족들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귀환 창업 장려정책이 시행되면서 창업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귀환 창업자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유행 한국 방송 청취, 인터넷과 SNS,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유지는 그들의 사업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귀환 이주자의 전략적인 선택은 국제 이주와 귀환을 좀 더 역동적인 현상으로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한국 이주 이외에도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도 고려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일부 대도시는 세계체제 내에서도 성공적인 중심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변의 조선족들 중 베이징, 상하이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고학력·전문직 종사자에게 해당하며, 다수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자본을 축적한다. 그러나 귀환 창업자들에게서 나

타나듯이 이들은 국제 이주를 통한 자본 축적을 디딤돌 삼아 본국에서 새로운 자본 축적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세계체제에서 주변부 노동력이 중심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설명이 지니는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족 귀환 창업자들은 이러한 세계체제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비용, 가능성과 제약을 전략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여 자본축적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선족 귀환 이주 및 창업은 디아스포라(diaspora)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혹은 타인의 강압에 의해 자신의 나라를 떠났으나 모국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는 민족 집단을 디아스포라라 하는데 조선족에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조선족 귀환 창업자 또한 디아스포라로서 유지했던 문화 자산을 한국으로 이주와 한국 내 경제활동에서 활용하기도 하였고 귀환 후에 창업과 사업 운영에 한국과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족 귀환 창업자를 ‘재-디아스포라(re-diaspora)’라 명명할 수 있겠다.

주

1) 조선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동포’가 있다. 전자는 국내 각종 통계 자료에서 사용되는 명칭으로 조선족이 우리와 같은 핏줄이면서 중국 국적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선족이 한반도를 떠나 중국에서 몇 세대를 거쳐 살아가면서 형성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덮어 버린다는 맹점이 있다. 반면 ‘중국동포’는 중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교포)까지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실제 재외동포법에서 동포는 재외국민인 교포와 한국계 외국인 양자를 포괄한다. 다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을 ‘재한 중국동포’라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중국으로 귀환한 조선족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집단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쓰는 ‘조선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자 한다.

- 2) 조선족 언론에서는 조선족자치구를 벗어나 중국 내 다른 지역 혹은 중국 밖으로 노무인력 등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온 사람을 ‘귀환조선족’이라 칭한다. 하지만 ‘귀환(return)’이라는 용어는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국외이주(emigration)했던 사람이 송출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귀환이주(return migration)라 칭하기 때문이다. 즉 귀환조선족은 한국 입장에서는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국외이주했다가 다시 한반도로 돌아온 한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된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간 것은 재이주(re-emigration)라 칭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을 이주를 반복한다면 순환이주(circulatory migration)라 할 수 있다.
- 3)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는 연변과 연변 모두 표준 한글표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표기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후 고유명사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변으로 표기하였다.
- 4) 한민족의 중국 동북지방으로의 이주 및 지리적 확산에 대한 설명은 최재현·김숙진(2016) 참조.
- 5)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지휘관이었던 이여송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다.
- 6)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설립되었으며 1955년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승격되고 장백산조선족자치현과 자치향 등이 설립되었다.
- 7) 중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중국 조선족 지역별 분포는 지린 104.0만 여명, 헤이룽장 32.8만 여명, 랴오닝 24.0만 여명, 산둥 6.2만 여명, 베이징 3.7만 여명, 상하이 2.2만 여명, 톈진 1.8만 여명 등이다.
- 8) 2018년 현재 한국 체류 조선족은 708,082명으로 체류자격별 분포를 살펴보면 재외동포(F-4) 333,046명, 방문취업(H-2) 220,604명, 영주(F-5) 81,039명, 방문동거·거주·동반·결혼이민(F-1, F-2, F-3, F-6) 45,456명, 단기방문(C-3) 25,614명 등이다.
- 9) 법무부 체류외국인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방문취업제 조선족은 월 평균 173.93만원을 벌고 이중 74.5만원(전체 소득의 약 43%)을 송금하며 30.5만원(한국 체류비의 약 31%)을 주거비로 쓴다.
- 10) 전체 응답자가 한국 거주 경험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거주 경험이 없는 귀환 창업자의 배우자가 설문응답을 하였고 기 때문임.
- 11) 조선업 부분의 속칭 “물량팁” 등이 전형적인 사례로 구인 광고를 검색하면 물량팁, 교포가능 등의 키워드가 검색된다. 인터뷰이 중 한명도 울산의 조선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무한 경향이 있었다.

12) 양꼬치의 경우도 엔벤에서 한국으로 음식 문화가 전파되었으나, 최근 엔벤에서 개업하는 양꼬치 식당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등 “한국화된 양꼬치 구이문화”가 다시 엔벤에 유입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성훈·구양미, 2018, “베트남 하노이 이주 한인 자영업자의 특성과 한인 네트워크,” *대한지리학회지* 53(3), pp.387-403.
- 김재기, 2005, “중국 조선족 농촌 집거구 해체위기와 ‘집중촌’ 건설,” *통일문제연구* 44, pp.111-143.
- 박경환, 2007, “초국가주의 뿌리 내리기: 초국가주의 논의의 세 가지 위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1), pp.77-88.
- 박광성, 2010, “초국적인 인구이동과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 *재외한인연구* 21, pp.357-374.
- 박우, 2017, “‘초국적 상경’과 서울의 조선족,” 서우석 외 엮음, *서울사회학: 서울의 공간, 일상 그리고 사람들*, 서울: 한국사회학회·서울연구원, pp.329-346.
- 방미화, 2016, “조선족 귀환이주자들의 창업활동과 초국적연결망을 중심으로,” *정음문화칼럼* 43. (<http://hljxinwen.dbw.cn>).
- 방미화, 2018, “연변지역 ‘귀환’ 조선족 창업과정 사례와 정책과제,” *한국학연구* 51, pp.37-66.
- 백일순, 2018, “외국인 주택 시장과 초국가적 주택 여과과정: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4), pp.370-392.
- 법무부, 2013,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서울: 법무부.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pp.5-37.
- 연변조선족사 집필소조 편, 2014, *연변조선족사*, 연변: 인민출판사.
- 윤신희·노시학, 2015, “새로운 모빌리티(New Mobilities)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9(4), pp.491-503.
- 이명옥, 2006, “중국 연길시의 도시화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1), pp.137-146.
- 이영민·이용균·이현욱, 2012,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 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 pp.103-116.
- 이영민·이은하·이화용, 2013,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와 연변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pp.55-70.
- 이용균, 2013, “초국가적 이주 연구의 발전과 한계: 발생학적 이해와 미래 연구 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pp.37-55.
- 이정현·정수열, 2015,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서울시 대림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pp.304-318.
- 이창호, 2012, “한국화교의 ‘귀환’이주와 새로운 적용,” *한국문화인류학* 45(3), pp.153-198.
- 이현욱·이영민·신지연·이화용, 2014, “초국가적 이주와 기원지 로컬리티 변화에 대한 연구: 중국 왕칭셴(汪清縣) 평린촌(鳳林村)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pp.29-42.
- 임채완·선봉규·박경환·전형권·이장섭·허성태, 2013,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주로트와 기억*, 전남대학교 세계한인문화연구 5차 총서 01, 북코리아.
- 정수열, 2018, “서울시 외국인 및 동포 이주민의 경제공간,” *서울연구원·한국경제지리학회, 서울의 공간경제학: 산업과 공간으로 본 서울의 경제*, pp.491-514.
- 정수열·이정현, 2014, “이주 경로를 통해 살펴본 출신국가별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발달 과정: 서울시 대림동 소재 중국 국적 이주민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8(1), pp.93-107.
- 정수열·임석희, 2012, “도시 내 이민자 자영업의 시공간적 역동성: 시카고 거주 한국인 이민자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3), pp.376-389.
- 지상현·정수열·김민호·이승철, 2017, “접경지역 변화의 관계론적 정치지리학: 북한-중국 접경지역 단동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3), pp.287-306.

- 최우길, 2019, “조선족 연구 30년: 회고, 과제 그리고 전망,” *재외한인연구* 47, pp.29-54.
- 최재현·김숙진, 2016,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지리적 해석: 중국 동북3성 조선족 이주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1), pp.167-184.
- 최학송, 2017, “도시화, 국제화 시대의 조선족과 그 대응,” *정음문화칼럼* 53. (<http://korean.people.com.cn/310773/310780/15646375.html>).
- Babones, S., 2005, “The country-level income structure of the world-economy,”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11(1), pp.29-55.
- Cerese, F., 1974, “Expectations and reality: a case study of return mig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to Southern Ital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8(2), pp. 245-262.
- King, R. and Christou, A., 2010, “Cultural Geographies of Counter-Diasporic Migration: Perspectives from the Study of Second-Generation ‘Returnees’ to Greece,” *Population Space and Place* 16, pp.103-119.
- Massey, D., 2013, *Space, place and gender*, John Wiley & Sons.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a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pp.431-466.
- Sheller, M. and Urry, J., 2006, “The new mobilities paradigm,”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2), pp.207-226.
- 교신: 정수열,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이메일: sychung@smu.ac.kr, 전화: 02-2287-5294)
- Correspondence: Su-Yeul Chung, School of Space and Environment Studies,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un 2-gil, Jongno-gu, Seoul, Korea (postal code: 03016, e-mail: sychung@smu.ac.kr, phone: +82-2-2287-5294)

최초투고일 2019년 12월 4일
수정일 2019년 12월 17일
최종접수일 2019년 12월 23일